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현빈 사진 등장

CNN 인도네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보도하면서 배우 현빈의 사진을 띄웠다가 사과했다.

지난 21일 CNN 인도네시아는 김 위원장이 심혈관 수술 후 중태에 빠졌다는 보도를 다루면서 배경 화면에 김 위원장과 현빈 사진을 나란히 사용했다.

뉴스가 방송된 후 해당 장면은 SNS를 중심으로 화제가 됐다. 이후 CNN 인도네시아는 방송 실수를 알아챈 뒤 방송 시간을 할애해 “해당 뉴스는 김정은 위원장에 관한 이슈로, 한국 드라마 속 리정혁 대위 캐릭터와는 무관하다.”며 “고의가 아니었으며 실수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사용된 현빈의 사진은 지난 2월 종영한 tvN ‘사랑의 불시착’의 한 장면이다. 당시 현빈은 북한 장교 리정혁 역으로 열연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사랑의 불시착’이 인기를 끌었던 터라 현지 누리꾼들은 “왜 리정혁의 사진을 사용했냐?”라며 CNN 인도네시아에 항의했다.

결국 CNN 인도네시아는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임을 인정하고 방송 뉴스를 통해 사과했다. 사과 내용



은 CNN 인도네시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영상으로 올라왔다.

‘사랑의 불시착’은 어느 날 돌풍과 함께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손예진 분)와 그녀를 숨기고 지키려다 사랑하게 되는 북한 장교(현빈 분)의 사랑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사랑의 불시착’ 마지막 회 시청률이 21.683%(유료 플랫폼)로, 역대 tvN 드라마 중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 넷플릭스를 통해 볼 수 있다고 상세히 소개했다.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새 앨범 참여

걸그룹 블랙핑크가 세계적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새 앨범 수록곡을 함께 작업했다.

레이디 가가가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공개한 6집 ‘크로마티카’ (Chromatica) 트랙리스트에 따르면 10번 트랙 ‘사워 캔디’ (Sour Candy) 옆에는 ‘위드 블랙핑크’ (With BLACKPINK)라고 표기돼 있다.

이날 빌보드는 해당 트랙리스트를 언급하며 “열여섯 곡으로 구성된 ‘크로마티카’에서 레이디 가가가 슈퍼스타 아리아나 그란데, K팝 현상인 블랙핑크, 전설적인 팝 아이콘 엘튼 존을 비롯한 모든 새로운 협력자들과 함께한 것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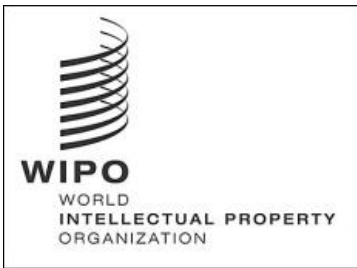
당초 ‘크로마티카’는 지난 10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발매를 잠정 연기했다. 정확한 발매일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블랙핑크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는 평소 서로의 음악을 듣고 팬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번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블랙핑크는 영국 출신 팝 가수 두아 리파 ‘키스 앤드 메이크업’ (KISS AND MAKE UP)에도 참여하며 세계적 팝스타와의 협업을 경험한 바 있다. 당시 이 곡은 빌보드와 함께 세계 양대 팝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36위에 올랐다.

한류스타 권리, 국제조약으로 보호받는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스타들의 권리가 국제조약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한류스타들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장하는 ‘시청각 실연에 대한 베이징조약’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던 한국 가수와 연기자,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저작물 등을 연기·가창·연구하는 사람)의 권리를 한류 붐이 이는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은 그동안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WPPT)에 가입해 실연자를 보호해왔지만 이 조약은 가수와 연주자 등 창작 실연만을 보호해 방탄소년단, 전지현, 유재석 등 시청각 실연자를 국제적으로 보호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베이징 조약은 시청각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권을 부여하고, 뮤직비디오 등 고정된 시청각 실연에 대해 배타적인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을 준다. 또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실연이 고정된 때로부터 최소 50년

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내 저작권법은 베이징조약이 규정하는 보호 의무를 웃도는 수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등 추가 조치는 하지 않아도 된다.

베이징조약은 30개국 이상이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 후 발효하는데 지난 1월 28일자로 이 요건을 충족해 4월 28일 발효될 예정이다. 현재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일본 등 31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한국은 지난 22일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제출해 3개월 뒤인 7월 22일부터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숫자퍼즐 정답

1	4	7	2	5	8	3	6	9
9	2	3	1	4	6	5	7	8
5	6	8	3	7	9	1	2	4
2	1	5	9	3	7	4	8	6
3	7	4	8	6	2	9	1	5
8	9	6	4	1	5	7	3	2
4	3	2	5	8	1	6	9	7
6	5	9	7	2	3	8	4	1
7	8	1	6	9	4	2	5	3

“에버그린 프리스쿨입니다”

www.myevergreenschool.com

“아이들이 VISION을 꿈꾸는 학교”

588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670.9687